

나주역, KTX 정차 횟수 확대 시급

혁신도시 준공 이후 승객 급증에도 하루 7회 무정차 통과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정차 확대·편의시설 확충 추진

전남 서남부권의 교통 요충지인 나주역을 운행하는 KTX가 하루 7회 무정차 통과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나주역은 나주시를 비롯해 영암·강진·해남·장흥·진도·완도군 등 7개 시·군 지자체 주민 39만 8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나주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고막원) 사업과 연계해 역사 증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 준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

회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이점을 완료하고 혁신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가속화되면서 고속철 이용 수요는 늘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 KTX 무정차로 나주역 이용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말 고속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KTX 무정차에 따른 불편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을 기준으로 나주역을 경유하는 KTX는 하루 36회(상·하행선 포함) 운행하고 있지만(상행선 14회·하행선 15회)는 정차하고 7회

(상행선 4회·하행선 3회)는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SRT는 하루 운행편수 18회 모두 나주역에 100% 정차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무정차에 이어 객차 수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KTX 582, 520, 522호 열차의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목·금요일 오후 3시~6시30분대 운행 열차는 항상 좌석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철 속도 향상'으로 나주역 정차에 필요한 '3~4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KTX도 SRT처럼 나주역에 100% 정차해 줄 것을 코레일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러 인구유입과 고속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나주역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하루 7회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 KTX가 추가로 정차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인근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전남 서남부권 7개 시·군의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시

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받는다

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현행 옥외 근로자에서 농·어업인 등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농어촌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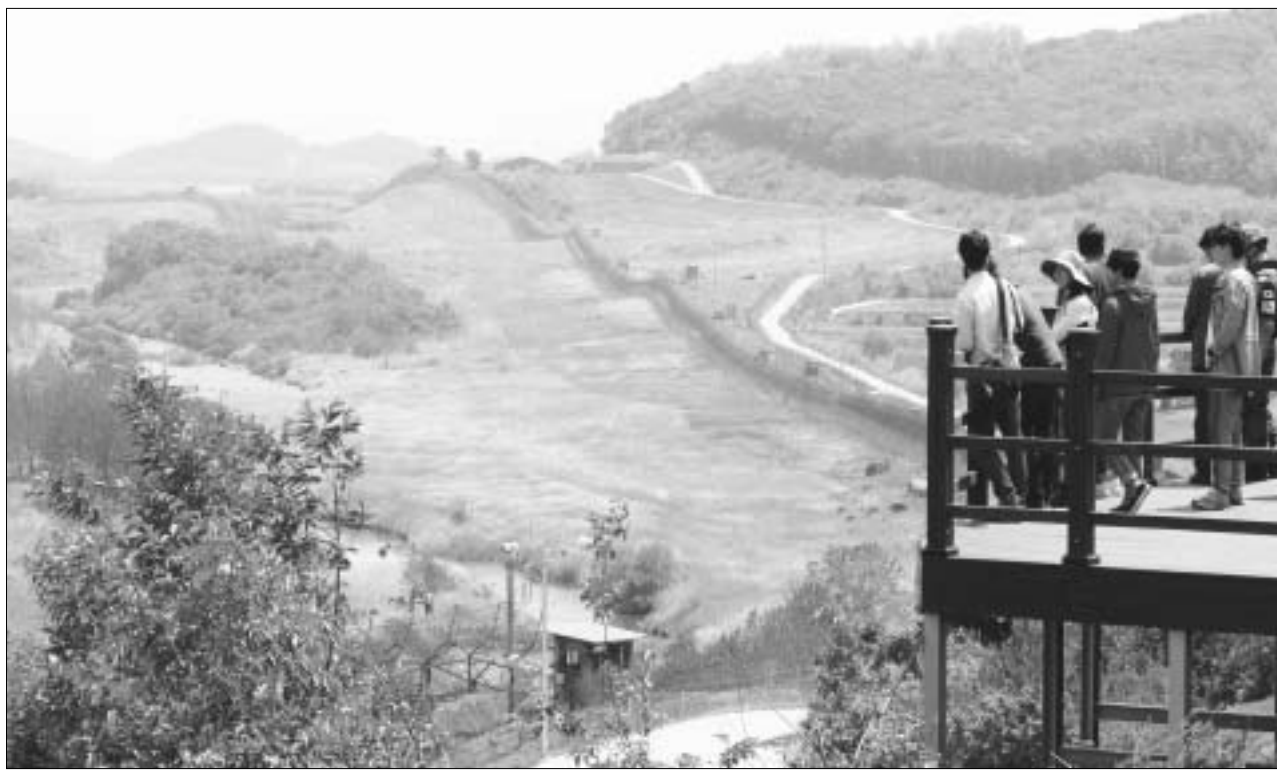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29만7167톤)의 77%, 농업 잔재물 소각은 연간 9537톤으로 생물성연소 총 배출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568톤으로 비(非)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에 이른다.

계다가 농업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고 고령자 비율이 높음에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민이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미세먼지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신청하게 된다.



비무장지대 바라보는 시민들 22일 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내 공작새 능선 조망대에 올라 철책선 너머 비무장지대를 바라보고 있다.

병원·영화관 등 광주 다중이용시설 라돈 농도 안전

다중이용시설 57곳 대상 지난해 1년 간 조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라돈(Rn)을 조사한 결과 권고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병원, 관공서, 영화관, 도매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57곳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가 높다고 알려진 지하와 1층 등 저층 공간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평균 라돈 농도는 46Bq/m³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³)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주 시험방법에 따라 라돈 검출기를 90일 동안 장기간 노출시킨 후 판독해 라돈 농도를 검사한 결과로 단기 측정방법에 비해 측정결과와 신뢰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흡연에 이어 폐암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암석이나 토양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 토륨의 자연방사성물질이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돼 폐기

하면서 알파선 방출로 폐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18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라 라돈을 검사를 계획했다.

서광열 광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신축 공동주택 등 실내 라돈농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며 "가정에서도 실내에 라돈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시의 택시요금·술값 안 낸 4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시의운행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안양에서 택시에 탑승해 대전버스터미널에 도착 택시비 20만원을 내지 않고 같은 날 오후 10시에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달 출소해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 대전버스터미널에서 요금을 내고 광주행 고속버스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도착한 A씨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10시에 식당을 찾았지만 술값을 내지 않았고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초에도 서구 지역 여관·식당 등지에서 총 9만2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기각했다.

또 A씨는 과거 70여 차례 속박비·술값을 내지 않아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긴급체포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 경찰이 탐장급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부동산 수사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경감은 광주 지역 부동산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정보를 다른 부동산 업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부동산 다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정보를 광주 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돼 수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또 이 과정에서 급부금 거래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혐의점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감은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광주 대인시장 상가서 불·부부 숨진 채 발견

광주지역 전통시장 내 한 상점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졌다.

22일 오전 6시55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내 한 수산물 상점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상점 건물 3층에 있던 A(61)씨와 부인 B(58·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3층 실내 10㎡가 모두 탔으나 불이 주변 상가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 2대, 소방관 5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부부가 머물고 있던 3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수협 직원, 노량진 구시장서 '음주' 망치 난동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에서 망치 난동을 부린 수협 직원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9시에 대형 망치로 시장 안의 자동차를 내리치고, 이를 막는 상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폭행)로 수협 직원 A씨(39)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변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저지한 일행 B씨(36)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밤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일 이뤄진 6차 강제 명도집행을 통해 철거한 판매소를 상인들이 다시 점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